Changw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hangwon CCI

이란 사태에 따른
창원지역 수출의 영향

2020. 1

창원상공회의소

Ⅰ.창원 對이란 교역

1. 창원 對이란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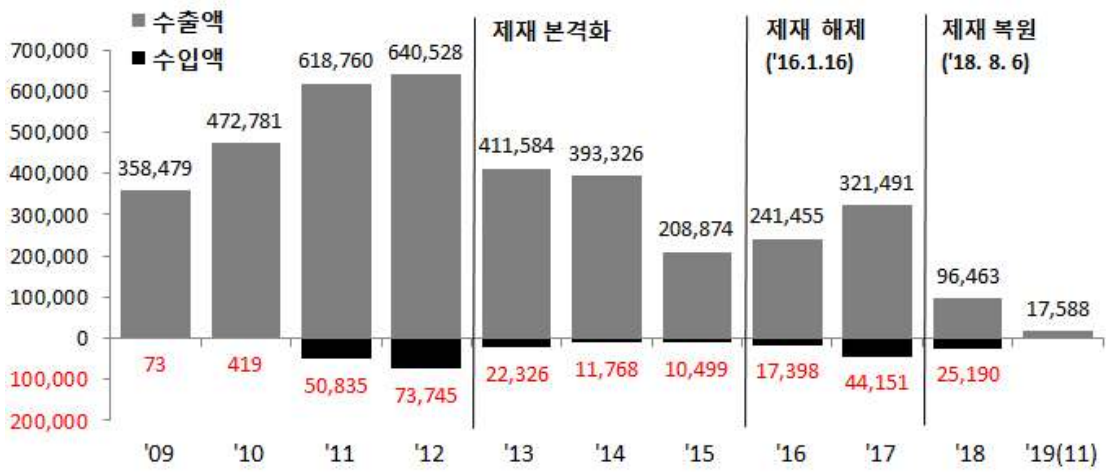
2019년 11월 누적 기준 창원의 對이란 수출은 국내 對이란 수출의 6.8%(경남 8.3%)를 차지했음.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2012년 말까지 창원은 울산과 더불어 10% 이상의 수출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이란과의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임.

창원 총 수출에서 對이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1.8%(3억 2천만 불), 2018년 0.6%(1억 불), 2019년(11월 누적) 0.1%(2천만 불) 수준임. 2018년 제재가 복원됨에 따라 다시금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음.

창원의 對이란 수출은 발전설비, 백색가전, 자동차부품, 철강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2년(6억 4천만 불)까지 꾸준히 수출액이 증가한 바 있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 교역량은 물론 이란 수입액도 감소를 보였던 2009년에도 창원의 對이란 수출은 증가하였음.

창원 對이란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 자료 : KITA.NET

하지만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란産 원유거래 제한과 201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철강 분야로까지 제재가 확대되며 창원의 이란 주력 수출품의 수출실적이 급감하였음. 창원의 對이란 자동차부품 수출은 2007년 5,125만 불, 2008년 5,086만 불, 2009년 3,037만 불, 2010년 2,731만 불 수준을 유지하다 한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한 후 영향을 받기 시작한 2012년 203만 불, 2013년 6만 불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150여 개에 달하던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의 수도 2015년 기준 95개로 감소했음.[1)]

2015년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2)]과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최종 합의한 후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이 완료됨에 따라 2016년 1월 16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된 바 있음.

경제제재 해제 이후 창원의 對이란 수출액은 다시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8월 6일 제재 복원으로 수출실적이 다시금 급감한 모습을 보임.

이렇듯 창원의 對이란 수출은 이란에 대한 제재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음.

2. 창원 對이란 업종별(품목) 수출 동향

가정용전자제품과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는 창원의 對이란 주력 수출산업임.

한국은 이란 금융제재가 이루어졌던 시기에도 예외국가로 인정되어 금융거래가 가능해 대금회수의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수출과 파트너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

특히 이란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창원 가정용전자제품의 對이란 수출은 2013년 3억 3,439만 불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창원 전체 對이란 수출의 73.7%를 차지했음. 원유수출 제한 등으로 이란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2015년에 큰 폭으로 감소(1억 3,419만 불)했으며, 제재 해제 후에는 중국 기업의 대

1) 이란제재 해제와 창원 對이란 교역 현황, 2016, 창원상공회의소

2)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 독일

거 진출에 따른 경쟁심화로 점진적 감소세를 보였음. 더욱이 제재 복원 후인 2018년부터는 1,890만 불, 2019년(11월 누적 기준)에는 196만 불로 급감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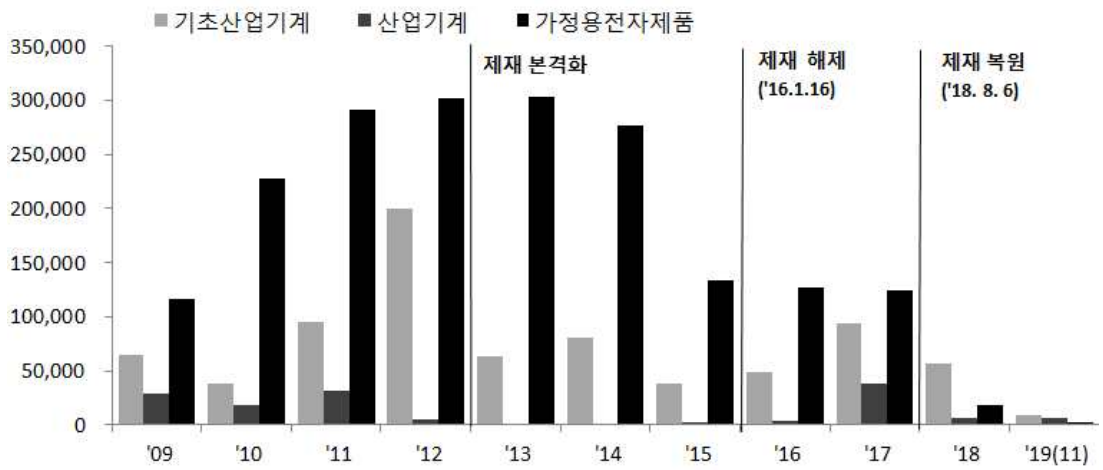
기초산업기계는 제재 해제 이후 이란 내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지면서 수출이 증가했음. 대부분 가열난방기, 펌프, 공기조절기 등 플랜트 제품들임. 단위 제품에 대한 수출액 규모가 큰 플랜트 수출의 특성 상 선수금, 중개무역 등 대금회수의 안정성 확보 후 수출하는 형태를 띠며, 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음. 하지만 이 역시도 대금회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수출규모가 2017년(제재 해제) 9,387만 불에서 2018년(제재 복원) 5,662만 불, 2019년 870만 불로 급감했음.

산업기계의 경우 제재 전후에 따라 특히 탄력적인 수출실적을 보였음. 2011년(제재 이전) 3,170만 불로 높은 실적을 보인 이후, 2012년(제재 본격화)에 559만 불로 급감, 2017년(지재 해제) 3,846만 불로 급증한 후 2018년(제재 복원) 612만 불로 다시금 급감한 모습을 보임.

최근 5년 간 창원의 對이란 수출품(MTI 4단위 기준)을 살펴보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정용전자제품과 '접시세척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용품, '가열난방기', '공기조절기', '펌프' 등 기초산업기계, '광산기계', '화학기계', '기타기계류 부품' 등 산업기계가 주력 수출품임.

창원 對이란 주요 수출산업 연도별 실적

(단위 : 천불)



※ 자료 : KITA.NET

창원의 對이란 수출품(2015~2019.11)

(단위 : 천불)

	2015	2016	2017	2018	2019(11월)
1	*냉장고* 125,181	*냉장고* 40,252	*냉장고* 55,850	*냉장고* 63,124	*가열난방기* 18,596
2	*세탁기* 72,683	*에어컨* 34,912	*에어컨* 40,419	*가열난방기* 38,961	*공기조절기* 11,283
3	*공기조절기* 62,459	*세탁기* 29,309	*공기조절기* 27,037	*접시세척기* 31,766	*에어컨* 11,238
4	*접시세척기* 44,299	*공기조절기* 20,211	*접시세척기* 23,748	*펌프* 30,459	*펌프* 5,810
5	*난방 및 전열기기 부품* 19,897	*펌프* 17,276	*세탁기* 18,656	*에어컨* 26,971	*냉장고* 5,273
6	*펌프* 18,359	*접시세척기* 14,589	*펌프* 14,271	*화학기계* 23,188	*접시세척기* 3,803
7	*에어컨* 12,964	*기타플라스틱제품* 13,591	*전자레인지* 10,598	*공기조절기* 18,875	*기타기계류부품* 3,761
8	*베어링* 9,459	*난방 및 전열기기 부품* 12,278	*자동차부품* 8,226	*세탁기* 16,378	*광산기계* 1,290
9	*TV카메라 및 수상기* 5,316	*TV카메라 및 수상기* 5,728	*냉방기* 6,877	*전자레인지* 15,426	*세탁기* 1,201
10	*냉연강판* 4,374	*냉연강판* 5,706	*배전 및 제어기* 4,149	*자동차부품* 9,169	*전자레인지* 1,096

<자료 : KITA.NET>

3. 창원 對이란 수출기업 현황

창원의 對이란 수출기업은 2018년 기준 23개임. 이란 제재가 해제된 이듬해인 2017년에는 42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진 2016에는 28개 업체가 수출실적을 기록했음. 2019년의 경우 2018년 8월 6일자로 제재가 복원되면서 23개 업체 중 17개가 거래를 중단했으며, 거래를 이어가는 기업 대부분도 앞선 수주에 대한 A/S 관련 품목 수출이며, UAE·아프리카 등 제3국을 우회한 대금회수, 선수금 거래 등의 방식으로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해 수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3)]

창원 對이란 수출 거래 대상

(단위 : 개사)

거래 대상	업체 수
이란 현지 기업 (국영기업, 대리점 포함)	20
제3국을 통한 위탁판매	2
제3국을 통한 중개무역	1
총	23

창원 對이란 수출기업 대금회수 통화

(단위 : 개사)

결재통화(대금회수)	업체 수
원화	11
유로화	5
달러화	3
원화, 달러화 병행	2
달러화, 유로화 병행	1
원화, 유로화 병행	1
총	23

3) 이란제재 복원과 창원 대이란 수출기업 모니터링, 2018, 창원상공회의소

Ⅱ. 시사점 및 업체 모니터링

- 2018년 이후 이란 수출업체(23개) 대부분 거래 중단... 현 시점 영향은 제한적
- 이란 제재와 해제에 탄력적인 영향 받아... 대금회수 방법 사실상 없어
- 발전설비, 가전, 자동차부품 등 잠재력 큰 이란시장... 교류 유지 필요

인구 8천만 명 이상의 소비시장(중동 2위 규모)과 인프라 구축 수요가 높은 이란은 관련 산업이 밀집한 창원에 있어 매우 매력적인 시장임. 한국과의 비즈니스 경험과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임. 실제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2년까지 창원의 對이란 수출은 가파른 성장을 보였음.(2002년 1억 2천만 불 → 2012년 6억 4천만 불)

하지만 한국 또한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창원의 對이란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한국과 이란 간에 이루어지고 있던 원화결제 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대금회수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임.

이란은 현재도 자국 내 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설비와 같은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에 있음.

이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거래가 중단된 현재에도 이란 현지로부터 거래재개를 원하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대금회수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문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창원산업은 이란에 대한 제재와 해제, 그리고 복원이 거듭되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을 줄여왔음. 제재가 복원된 2018년 8월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며, 창원 전체 수출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도 0.1% 수준으로 낮아 이번 이란 사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18년 기준 창원의 23개 對이란 수출업체 대부분이 거래를 중단한 상황임.

창원 전체에 있어 對이란 수출 비중은 낮은 수준이나, 잠재력은 매우 큰 시장임. 창원의 공작기계, 발전설비, 자동차부품, 백색가전 등 창원의 주력산업과 이

란의 수요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임.

현 시점 최고 수준의 제재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거래기업 간의 비즈니스 공백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이란은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정치적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로 2018년 이후 철수한 유럽, 한국, 일본의 빈자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후 제재가 해제될 시기에 재진입을 위해 기존 거래가 이루어져온 현지 파트너와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공유를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음.